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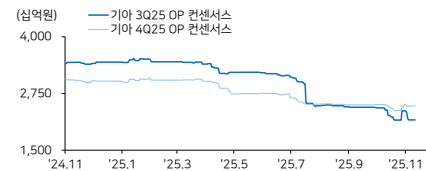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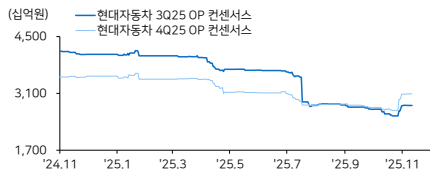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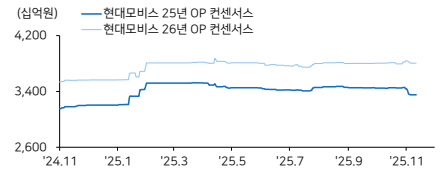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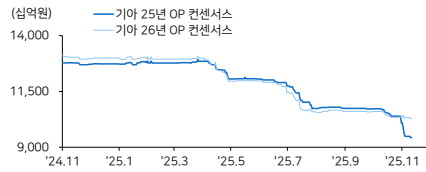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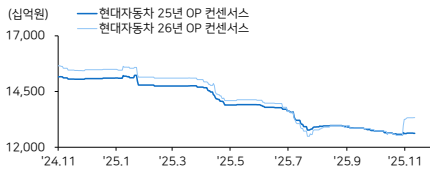
2025.11.24 (월)

자동차/모빌리티 Analyst 김준성 joonsung.kim@meritz.co.kr
RA 김아현 ahyun.kim@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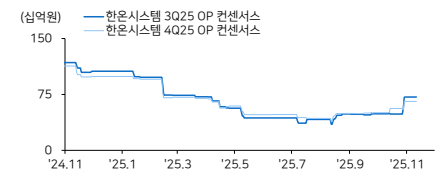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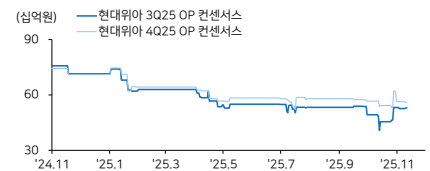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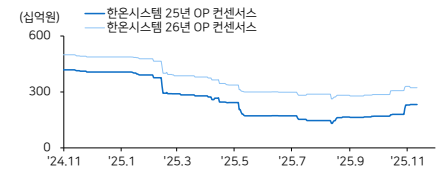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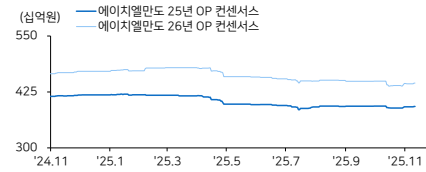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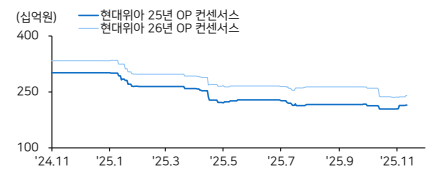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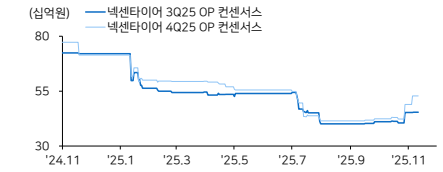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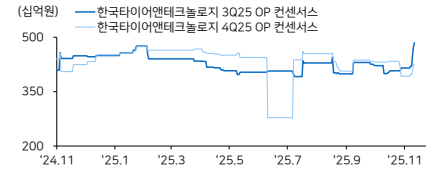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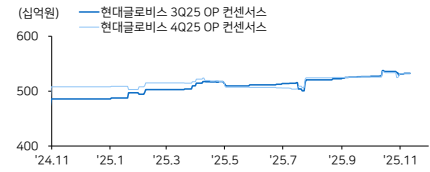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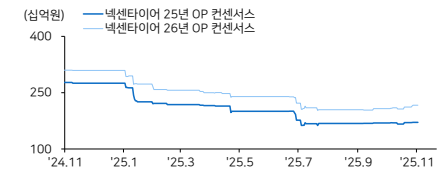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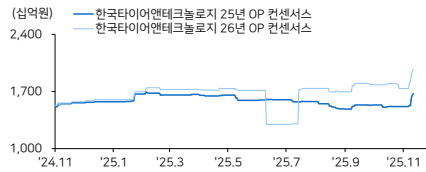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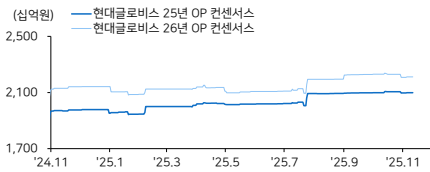
현대자동차 / 기아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현대글로비스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국내외 주요 뉴스

Tesla Full Self-Driving lands in a new country, its 7th (Teslarati)

Tesla의 FSD (Supervised)이 한국에서 공식 출시되어, 미국·푸에르토리코·캐나다·중국·멕시코·호주·뉴질랜드에 이어 7번째 국가가 됨. 한국 오너들은 최근 버전인 v14.1.4를 업데이트 받는 중. 유럽은 네덜란드 당국과 협력해 내년 초 출시를 목표로 함
<https://han.gl/GLCST>

Xpeng Is Running Tesla's Playbook For World Domination. It May Just Work (InsideEVs)

XPeng이 최근 공개한 'IRON'과 자체 개발 '퓨링 칩' 3개로 구동되는 VLA 2.0 AI는 중국 밖에서도 최소 학습으로 작동 가능, 특히 유럽 등 해외 시장에서 LIDAR·고급 자율주행 기능에 그대려 가능한 BYD·Nio·Zeekr 등 경쟁 중국 브랜드와 차별화
<https://han.gl/puPxR>

로보트윈에 쏠린 현대모비스, 대규모 인재 수혈 (서울경제)

현대모비스는 휴머노이드 로봇 핵심 부품 '액추에이터' 양산을 위해 로보틱스사업추진실 대규모 채용을 진행 중. 보스턴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는 2028년 상용화에 맞춰 액추에이터 공급을 준비하는 움직임으로, 이르면 2027년부터 납품이 예상
<https://han.gl/Z9hzb>

제네시스·현대차·기아, 신차 3종 동시 공개...글로벌 시장 공략 '가속' (이투데이)

현대차그룹은 제네시스 GV60 마그마(첫 고성능 전기차), 현대 크레타(콤팩트 오프로드), 기아 신형 테루라이드(3열 SUV)를 동시에 세계 최초 공개하며 글로벌 시장 공략을 가속화. 차급별 경쟁력을 강화해 주요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행보
<https://han.gl/Fuhu0>

Ford reaffirms annual EBIT guidance after latest aluminum supplier fire (Reuters)

Ford는 이번 주 노벨리스 뉴욕 공장에서의 두 번째 화재에도 불구하고, 2025년 EBIT 전망치 60~70억 달러를 재확인. 9월 대형 화재로 최대 20억 달러 손실 예상되며 전망치 하향 조정했으나, 내년 트럭 공장 중단 등으로 약 10억 달러 손해 계획
<https://han.gl/SuOfg>

Tesla CEO Elon Musk teases insane capabilities of next major FSD update (Teslarati)

Tesla는 FSD v14.2를 배포, v14.1 대비 브레이크 급정거와 망설임 크게 개선 및 대부분의 주행에서 매우 안정적. 일론 머스크는 차기 업데이트(v14.3)가 "퍼즐의 마지막 큰 조각이 드디어 맞춰지는" 수준의 혁신적 성능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고

한-UAE, AI·청단산업 협력 강화 '자율주행 합작법인 설립' (파이낸셜뉴스)

한국과 UAE는 자율주행 합작법인 설립으로 AI·청단산업 협력 및 대규모 프로젝트 본격화. 오토노머스A2Z와 UAE 국영 SPACE42가 400만 달러 공동 출자로 한-UAE 합작법인을 설립, 800만 달러 규모 아부다비 자율주행 프로젝트에 공동 추진
<https://han.gl/kry2w>

대서는 'OS'...엔진 아닌 '인터페이스'로 승부하는 후 업계 (데일리안)

자동차 업계의 기술 경쟁이 '출력'에서 '디지털 경험'으로 이동하며, 스크린·소프트웨어·OS가 새로운 엔진으로 부상중. 앞으로는 응답 속도·정보 명료성·인지 부하 최소화해 브랜드별 드라이빙 철학을 결정짓는 새로운 퍼포먼스 척도가 될 전망
<https://han.gl/t0pZL>

폭스바겐, 독일 인력 구조조정 2만6000명 확정...목표치 70% 달성 (더구루)

폭스바겐은 독일 내 3.5만명 감축 목표 (2030년까지) 중 이미 2.5만명 이상 퇴사에 합의하며 구조조정 70% 달성. 볼프스부르크·엠덴·조비카우 등 주요 공장의 평균 운영비용 30% 절감하는 성과 거뒀으며, 이는 전기차 투자 자원 확보로 이어질 전망
<https://han.gl/HvOhj>

르노·닛산, 새 경영진 나서 '28년 동맹' 재정의...그 변화의 시작은? (더구루)

르노의 신임 CEO 프랑수아 프로보 취임 이후 르노·닛산 26년 동맹 재정의 가속. 전기차 플랫폼 공유, 공동 개발·생산 최적화, 신동시장 전략 등을 중심으로 비공식 협의 진행 중. 프로보 CEO는 "닛산과의 파트너십이 한계를 극복하는 핵심"이라고 강조
<https://han.gl/HvOhj>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는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외, 배포 될 수 없습니다.